2013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열)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가)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보존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의 저항력이 강해서, 여러 장애물의 저항력이 각 개인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되면 이 원시 상태는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되므로 인류는 그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란 새로운 힘을 창출해 낼 수는 없고 다만 이미 존재하는 힘을 결합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저항력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 힘을 한데 모으는 과정은 자기보존을 유일한 동기로 삼아 함께 움직여 나가야 한다.

이 힘의 총화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각자의 힘과 자유는 자기보존을 위한 최초의 수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각자는 자기 자신을 손상시키거나, 자기보존을 소홀히 하지 않고도 이 힘과 자유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난제를 나의 주제와 결부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서로의 힘을 합하여 공동의 힘으로 각 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연합형태를 조직하기는 하지만, 전체를 위한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불복종을 의미하지 않는, 그래서 전체에 결합하지만 종전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잃지 않는 연합형태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회계약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근본 문제이다.

이 계약의 조항들은 조금만 수정을 가하여도 그 계약 모두가 무효화되거나 백지화되도록 행위의 본성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은 아직까지 명문화되어 공포된 적은 없으나, 어디에서나 같은 성격으로 또 어느 곳에서나 암묵적으로 인정받아 온 것이다. 만약 사회계약이 파기되어 버린다면 각 개인은 원초적 자유를 포기한 대신에 얻은 공인된 자유를 상실하고, 애초부터 주어진 권리와 자연적인 자유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계약 내용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일체의 권리를 전적으로 그 공동체에 양도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각자가 모두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각 사람이 놓인 조건은 동일하게 되며, 각 사람의 조건이 동일해지면 누구도 타인에게 불리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양도가 온전히 이행되면 그 결합도 가장 완전하게 되므로 어떤 구성원도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게 된다. 만약 각 개인에게 어떤 권리가 남아 있다면 개개인과 공중 사이에서 심판을 내려줄 높은 권력자가 없으므로, 어느 면에서는 자신의 심판관인 각 개인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겠다고 나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연 상태는 존속될 것이며, 연합체는 필연적으로 전제(專制)적이 되거나 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각자는 자신을 전체에 양도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과 동일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구성원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개인은 그가 단체에 양도했던 것과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는 데에도 더 큰 힘의 조력을 얻게 된다.

(나)

우리나라는 조종(祖宗) 이래로 지성껏 중국 문화를 섬기어, 오로지 중국 제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야흐로 중국과 문물제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때에, 언문을 창제하시면 이를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히 여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중략)

예로부터 9개 지역으로 나누인 중국 안에서 기후나 지리가 비록 다르더라도 아직 방언으로 인해서 따로 글자를 만든 일은 없습니다. 오직 몽고, 서하, 여진, 일본, 서번(티베트)과 같은 무리들만이 각각 제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오랑캐들만의 일이라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중국[夏]의 영향을 받아서 오랑캐[夷]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았지만, 오랑캐의 영향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역대 중국에서는 모두 우리나라가 기자(箕子)의 유풍을 지니고 있어서, 문물제도가 중국과 견줄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들어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진다면 이것은 이른바 소합향(蘇合香)을 버리고 쇠똥구리의 환약을 취하는 것이니, 어찌 문명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라 때 설총이 만든 이두는 비록 거칠고 촌스러우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려서, 어조사로 쓰기 때문에 한자와 애당초부터 아무 상관이 없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록 서리나 하인들의 무리까지도 꼭 이를 익히고자 한다면 먼저 한문책 몇 권을 읽어서 약간 한자를 안 다음에야 이두를 쓸 수 있습니다.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한자를 의지해야만 뜻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두로 인해서 한자를 아는 사람이 자못 많아, 역시 학문을 진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원래 한자를 몰라서 결승문자(結繩文字)를 쓰는 시대라면 언문을 빌려서, 잠시의 변통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옳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옳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저 언문을 써서 잠시 변통하기보다는 차라리 천천히 저 중국에서 통행하는 한자를 익혀서 장기적인 계획을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두는 수천 년 동안 써 오면서, 관청의 문서 기록과 약속, 계약 등으로 쓰여서 아무 탈이 없는 것이거늘, 어째서 예로부터 써 온 폐단이 없는 글자를 고쳐서 따로 속되고 이로움이 없는 글자를 만드시나이까? 만일에 언문이 통용되면 관리가 될 사람이 오로지 언문만 배우고 학문을 돌보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한자와 관리가 갈리어 둘이 될 것입니다. 진실로 관리 된 자들이 언문으로써만 모든 일을 하고 또 벼슬길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뒷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이 됨을 보고 27자 언문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입신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성리의 학문을 닦겠나이까? 이렇게 나가면 수십 년 뒤에는 한자를 아는 사람이 반드시 적어질 것이오며, 비록 언문으로 관공서 일을 수행할 수 있더라도 성현의 한자를 알지 못하면 배우지를 못하여 담에 얼굴을 댄 것 같아서, 사리의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다만 언문에만 공을 들일 것이니 장차 어디에 쓰겠나이까?

우리나라가 덕을 쌓고 어진 정치를 베풀어 문을 숭상해 온 교화가 점점 사라져 버릴지 두렵습니다. 이보다 앞서 쓰여 온 이두가 비록 한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데도, 유식자들은 아직도 이를 천한 것으로 여겨서 이문(吏文)으로써 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언문은 한자와 조금도 연관이 없는 것이며 오로지 시장거리의 속된 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언문이 전조(前朝)부터 있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문명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노(魯)의 풍속으로 변화시켜 도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니 어찌 언문 같은 좋지 않은 옛것을 이어받아야 하나이까?' 하고 반드시 이를 바로잡겠다고 논의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뚜렷이 알 수 있는 이치이옵나이다.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함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폐단이니, 이제 이 언문은 다만 하나의 신기한 재주일 뿐이오며, 학문을 위해서도 손해가 되고, 다스림에 있어서도 이로움이 없으니,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 이로움을 알 수 없사옵니다.

(다)

자기에 대한 자각은 다른 무엇보다 서양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그런 만큼 주체성의 문제가 그 자체로서 서양적 정신에 뿌리박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가 주체성에 대해 말할 때 서양적 주체성의 이상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유의 개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값진 선물이었으며, 근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비로소 보편화된 유산이었다. 그런즉 우리가 자유와 주체성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의 서양적 시원이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자유와 주체성의 이념은 지나간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서양적 가치로서 남아 있으며, 자유와 주체성에 관한 한 서양 사회는 여전히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앞선 사회이다. 이 점에서 서양 사회가 우리가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모범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양적 자유와 주체성의 이념이 더 이상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체는 역사적이다. 주체는 본질적으로 자기의식, 곧 의식의 자기반성에 존립한다. 반성 속에서 의식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간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기억함이다. 이 기억함

속에서 비로소 내가 나를 반성하고 그 반성 속에서 나는 자기가 되고 주체로서의 내가 된다. 그런데 기억은 '홀로주체'의 일이 아니다. 기억은 나의 기억인 만큼 또한 너의 기억이며 너에 대한 기억이다. 너와의 매개가 없다면 나 혼자만의 기억이나 회상은 있을 수 없다. 나의 회상은 우리의 회상이기도 한 것이다. 주체의 '서로주체성'은 기억과 정립의 이 공동성에 존립한다. 기억이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일 때 그것을 가리켜 역사라 한다. 그리하여 주체는 언제나 역사에 매개되어 있다. 자기의식은 역사의식이기도 하다. 진정한 주체성은 역사성인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주체성이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한에서 역사가 달라지면 주체성의 성격과 내용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역사는 다른 주체를 낳는다. 그런즉 서양 철학이 형상화해 보였던 주체성의 이념은 다른 주체성을 모두 감쌀 수 있는 보편적 주체성이 아니다. 보편적 주체성은 언제나 이념이다. 한국인의 역사가 서양 사람들의 역사와 다른 한에서 서양적 주체성이 한국인의 주체성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역사가 남성의 역사와 같지 않은 만큼, 남성의 주체성이 여성적 주체성을 모두 포섭할 수 있다고 거만을 떨 수도 없는 일이다. 주체성에 관해 이런 식의 차이는 역사의 궤적이 달라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난다. 호남인들의 역사적 체험이 영남인들의 그것과 같지 않다면 그들의 역사의식과 자기의식 역시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역사가 달라지면 주체성의 내용도 달라진다. 그런즉, 고정된 자기와 고정된 주체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함부로 자기와 남을 싸잡아 우리라 하고, 보편적 자기의식을 입에 올리는 것 역시 폭력이다. 보편적 주체성은 언제나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념이다.

(라)

제도적 세계의 객관성이 개인에게는 아무리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내고 건설한 객관성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 활동의 외면화된 산물들이 객관성이란 특성을 지니게 되는 과정이 객관화이다. 제도적 세계는 인간 활동을 객관화시키며 또한 개개의 단일한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객관성은 사회적 객관성을 만들어 낸 인간 활동과 분리되어 그 존재론적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인간은 세계를 만들어 내었으면서도, 그것을 마치 인간의 산물이 아닌 듯이 체험한다. 생산자인 인간과 생산물인 사회 세계와의 관계는 변증법적이며, 또한 그렇게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고립된 인간이 아닌 집합체로서의 인간과 그의 사회 세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생산물은 생산자에게 반응을 보인다. 이렇듯 외면화와 객관화는 끊임없는 변증법적 과정 속의 한 순간들이다. 외면화와 객관화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계인 내면화 단계는 객관화된 사회 세계가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의식으로 다시 투영되는 과정이다. 사회 현실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변증법적 단계의 근본적 관계를 볼 수 있다. 그것들은 각기 사회 세계의 근본적인 특성화에 일치한다. '사회는 인간의 산물이다. 사회는 객관적인 현실이다. 인간은 사회적 산물이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것이라도 생략되면 사회 세계에 대한 분석은 왜곡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게다가 새로운 세대로 사회 세계를 전달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근본적, 사회적 변증법이 나타난다.

제도적 세계는 합법화, 즉 그것이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덜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사회적 현실은 역사적이며, 그것은 일대기적인 회상보다는 전통으로써 새 시대에 전달된다. 사회 세계의 창조자들은 그들의 세계와 그 세계의 어떤 부분이라도 확립되어 있는 한 언제나 환경을 다시 건설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상력을 이용하여 제도의 의미에 새로운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다. 창조자들의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다. 제도의 역사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소문'을 통해서이다. 그들이 제도의 원래 의미에 기억을 통하여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의미를 다양한 합법화된 형식으로 그들에게 풀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새 세대에게 설득력을 갖게 되려면 제도적 질서의 견지에서 보아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어야만 할 것이다. 세대를 거쳐 확대되는 제도의 질서는 인식적이고 규범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법화들은 사회화 과정을 거쳐 제도적 질서로 인도하는 동일한 과정에 의해 새 세대에게 교육된다.

(마)

<표 1> 여성의 생활시간 현황: 20세 이상

(단위 : 분)

구분	계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일반인의 학습	이동	기타
전체	24:00	10:53	2:48	0:10	2:48	1:31	0:22	0:33	0:47	0:03	4:39	0:12	1:35	0:19
미혼	24:00	11:10	3:52	0:51	0:50	0:18	0:05	0:11	0:04	0:01	4:54	0:38	2:02	0:16
기혼	24:00	10:42	2:40	0:02	3:21	1:51	0:26	0:38	1:05	0:03	4:18	0:07	1:31	0:19

주: 개인유지는 수면이나 식사 등 개인 건강 유지 활동 의미

<표 2>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 20세 이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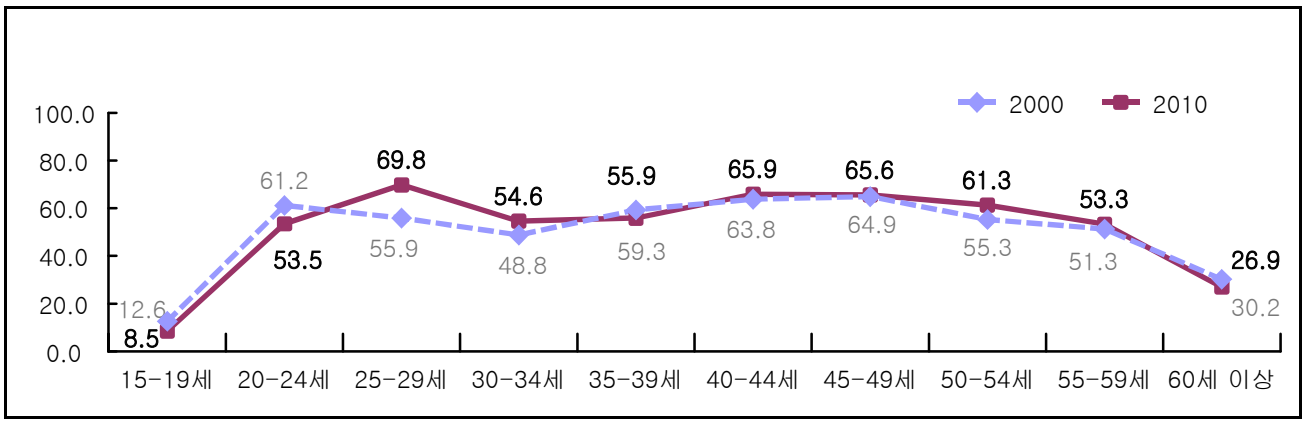
구분	계	사회적 편견·관행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일에대한 여성 능력부족	구인정보 구하기 어렵다	육아 부담	가사 부담	모르겠다
전체	100.0	19.9	3.2	12.7	1.5	3.1	52.6	5.2	1.8
미혼	100.0	28.8	3.4	18.8	1.3	2.6	38.2	4.5	2.4
기혼	100.0	16.2	3.1	10.1	1.6	3.3	58.5	5.5	1.6

<표 3>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20세 이상 여성

(단위 : %)

구분	계	명예 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 흥미	보람 자아성취	발전성 장래성	기타
전체	100.0	2.4	30.1	34.3	14.4	9.5	7.9	1.3
미혼	100.0	3.2	27.9	26.3	20.0	12.1	9.6	1.0
기혼	100.0	2.1	31.1	37.6	12.1	8.4	7.3	1.4

<그림 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여율



문항 1)
(가)의 내용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것을 (나) - (라) 중에서 모두 찾아 각 제시문의 논거를 요약하고 그 차이점을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항 2)
(1) (마)의 <그림 1>은 지난 10년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변화 양상과 그 원인을 150자 내외로 기술하고, (2) (마)의 <표 1>~<표 3>을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250자 내외로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항 3)

연령에 따른 교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젊을수록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현상이 10년~20년 동안 지속되면 남교사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교사 성비 불균형은 학업 지도, 생활 지도, 인성 지도, 학교 운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며,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기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한 뒤, 자신이 정한 입장의 논거들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이에 의거하여 반대편 논거를 담은 제시문의 주된 내용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가)-(라)의 제시문을 모두 활용할 것)(1,000자 내외, 배점 50점)